



고창 선운산도립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16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고창 선운산도립공원 문광부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 선정

국비 1억 6000만원 확보

서남권 최고의 관광명소인 고창 선운산도립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16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 도내 최초로 선정됐다.

고창군은 전국 26개 관광지가 응모한 이번 공모사업에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5개 선정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억 6000만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선운산도립공원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열린 관광지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남원 꼭지 짧은 수박 4월부터 전면 유통

1-자형 3cm 이내로... 연간 627억 경제 효과 예상

지난 4월 1일부터 꼭지 짧은 수박이 유통되기 시작했다. 수박꼭지의 모양은 종전의 T-자형에서 1-자형으로 바뀌고, 꼭지의 길이는 종전의 10~15cm에서 3cm 이내로 짧아지며, 적용 대상은 전국 공영도매 시장 전국 농협농산물판매장, E-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소매점이다.

외국의 경우 꼭지가 없는 상태로 유통이 되고 있어, 학계 연구를 실시한 결과 꼭지 길이와 품질은 무관하고, 유통의 편의성 등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꼭지 짧은 수박 유통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또한 강화시켜나갈 예정이다.

Advertisement for J&J GRAPHIC featuring a lighthouse illustr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남원시, '녹색아파트' 2곳 선정

메카센트럴·호반리젠시빌아파트

남원시가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확산을 위해 2016년 녹색아파트로 메카센트럴, 호반리젠시빌아파트 2곳을 선정하였다.

녹색생활 실천 등 입주주민과 함께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온실가스를 직·간접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에너지 컨설턴트가 가정의 온실가스 배출실태를 파악하고 가정이 실천해야 할 에너지 감축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 한농공, '내고향 물살리기 환경정화'

팔덕저수지에서 전주평화로타리클럽·농업인 등 참여

한농농어촌공사 순창지사는 최근 지역주민들에게 수질관리의 필요성을 계몽하고 깨끗한 환경, 풍요로운 농어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에 위치한 팔덕저수지에서 '내고향 물살리기 운동'을 실시했다.

클럽은 평소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의 정진으로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며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나눈다는 중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지역 농업인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화활동 및 관계기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한 한농농어촌공사의 '내고향 물살리기 환경정화'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줄타기, 줄광대 이야기' 공연 27일 오후 3시 임실군청 문화강좌실

임실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오는 27일 오후 3시 '줄타기, 줄광대 이야기'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임실군과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주관하여 4월 문화가 있는 날 특별기획프로그램으로 열리며, 김대균(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 보유자) 명인의 공연과 유영대 교수(고려대학교 국문학과의 강연 및 재담, 김대균 줄타기 명인의 시연으로 진행된다.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 23일 개막

제22회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쭉제가 오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지리산 바래봉 기슭과 허브밸리 일원에서 열린다. 바래봉은 해발 1,165m로 매년 4월 말 하단부를 시작으로 5월 중순 정상까지 순차적으로 산을 붉게 물들이는 전국 제일의 철쭉명사이다.

임실군, 아동·여성 안전연대 회의

임실군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21일 군청 간부회의실에서 '2016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신명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경찰서, 교육지원청,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공부방, 보건의료원 등 8개 기관의 대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지난해 지역연대 운영 실적과 2016년 운영활성화 방안, 기관별 아동·여성 안전관련 사례 발표,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고창군, 물놀이 안전시설 보강

고창군이 물놀이 안전시설 보강에 나섰다. 20일 군에 따르면 최근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부안면 용산천 등 6개소에 물놀이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아울러 물놀이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위험표지판과 인명구조함을 설치하고 구명조끼와 구명환도 추가로 구입해 비치했다.